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호감도 및 사회적 거리감*

Stereotypes, Affect and Social Distance toward People from
Southeast Asia among Visiting Superviso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김경화**

Dep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rofessor Kim, Kyong Hwa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tereotypes, affect and social distance toward people from Southeast Asia among visiting superviso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social distance. The subjects were 243 visiting superviso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for Windows 15.0 through means, standard deviations, Cronbach's α , Scheffé tests,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regression.

It was found that stereotypes and affect among visiting supervisors toward people from Southeast Asia were somewhat positive, at a little higher than midpoint. Social distance, on the other hand, was found to be a little lower than midpoint. To discover the factors that influenced social distance, a stepwise regression was executed. Stereotype was the factor with the highest magnitude of effect and affect was the second- strongest factor in explaining the social distance found among visiting supervisors. Age was the third significant factor in explaining social distance.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35.7% of variance in the social distance data.

* 이 논문은 2011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주저자: 김경화 (khkim@cu.ac.kr)

Key Words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visiting superviso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고정관념(stereotype), 호감도(affect),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동남아시아인(people from Southeast Asia)

I. 서론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등장한 주요한 이슈 중 하나가 이주민의 유입과 이로 인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라 하겠다. 다문화적 현상은 단일민족의 전통을 강조하던 한국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경험으로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이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소수 집단 구성원과의 소통과 공존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소수민에 대한 차별과 무시, 결혼이민자 여성의 문화적 부적응,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부적응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등장하였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게 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족을 위해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방문교육사업은 방문교육지도사를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직접 파견하는 사업이다. 방문교육지도사는 결혼이민자 및 이들 가족에게 한국어교육, 임신·출산지원, 자녀양육지원, 자녀교육, 가족상담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문교육지도사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교육지도사에 대한 선

행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방문교육지도사를 주제로 한 연구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연구가 몇 편 있을 뿐이다(김경화, 2010; 김경화·민하영, 2011).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방문교육지도사가 상이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국내 소수민 집단에 대해 갖는 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타집단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편견적 태도는 그 집단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혜숙(2002)에 의하면 고정관념적 태도는 지각자의 정보처리과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대상자의 행동을 왜곡하거나 비하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도 인지가 되어 대상자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김경화와 민하영(2011)의 연구에서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타집단에 대한 태도가 이들과의 소통방식 뿐 아니라 직무수행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문교육지도사가 타국가에서 이주한 소수민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방문교육사업의 대상자인 결혼이민자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출신지역은 동남아시아로 전체의 77.4%를 차지한다.¹⁾ 다양한 출신의 소수민들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한국어교육서비스를 받은 중 11,804명 중 베트남 출신이 57.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필리핀 11.4%, 캄보디아 9.1% 등으로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가 전체의 80.2%를

각 출신 국가별로 방문교육지도사가 갖는 태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제한된 지면의 연구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문교육사업 서비스 대상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태도를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인간의 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신념과 감정은 행동과 함께 태도의 3가지 차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행동차원은 신념차원과 감정차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금미, 2010; 김혜숙, 2007; 양계민, 2009; 최훈석·양애경·이선주, 2008). 본 연구는 방문교육지도사가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갖는 태도 수준을 고정관념(신념적 차원), 호감도(감정적 차원) 및 사회적 거리감(행동적 차원)의 3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태도의 차원들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학력, 가정의 수입정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수용적인 행동을 할 의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거리감의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갖는 태도의 수준과 사회적 거리감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방문교육지도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상기 기술한 연구목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연구문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방문교육지도사의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 호감도, 사회적 거리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방문교육지도사의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 호감도 및 사회적 거리감은 방문교육지도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학력, 가정의 수입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방문교육지도사의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현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및 이들 자녀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폭력, 국제결혼가족 자녀들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2005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들 가족을 위한 다문화정책이 추진되기 시작되었다. 12개 정부부처에서 각기 경쟁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면서 프로그램의 중복 및 혼선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고, 다문화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방문교육지도사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사업이 있다. 방문교육지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5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성교육의 내용은 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 전문성 영역(33시간), 공통영역(17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 중인 지도사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지도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나타내었다. 아동교육서비스는 2010년 9,25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그 중 베트남 출신이 53.6%, 필리핀이 12.2%, 캄보디아가 7.5% 등의 분포를 보여,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가 전체 서비스대상자의 74.0%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방문교육서비스를 받은 결혼이민자 중 77.4%가 동남아시아인으로 보고되었다(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10).

보수교육(8시간)과 수시교육 또한 제공된다.

방문교육지도사의 업무수행 체계를 살펴보면, 방문교육지도사는 업무시작 전에 선정된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초기면접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초기면접을 통해 사전조사를 함으로써 대상가정의 욕구를 파악하여, 방문활동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결혼이민자 가정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0).

방문교육지도사는 한국어교육지도사와 아동양육지도사로 구분된다.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사용능력 및 출신국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한국생활의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생활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의 공공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양육지원서비스는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자녀학습 및 학교생활에 대해 지도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자녀양육역량을 강화시키며, 자녀의 영양과 건강지도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일상생활 및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의 도움을 제공한다. 방문교육지도사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자녀교육이나 자녀양육과정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 적응과 가정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담해주는 멘토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을 수 있다.

2.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

타집단에 대한 태도는 신념적 차원, 감정적

차원, 행동적 차원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파악되고 있다(김혜숙, 2007; 양계민, 2009; Allport, 1954). 어떤 집단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고정관념은 신념적 차원을,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호불호)는 감정적 차원을, 어떤 집단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거리감은 행동적 차원을 나타낸다. 태도의 3가지 차원 중 신념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가 대상에 대한 인지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면, 행동적 요소는 대상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도(behavioral intent)를 나타낸다(Ajzen, 1991).

1) 사회적 거리감

태도의 3가지 차원 중 사회적 거리감은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 및 수용적인 행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사회적 거리감은 “공감적 이해”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Bogardus, 1933: 268), 타집단 구성원에 대해 수용하는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즉 수용적인 행동을 할 실천의지를 나타낸다(김금미, 2010; 최훈석·양애경·이선주, 2008).

사회적 거리감은 미국의 중요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타인종에 대한 차별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시도한 Bogardus(1925)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연구초기 소수민 집단에 대해 이루어졌던 사회적 거리감 연구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장애인, 환자 등에 대한 연구로 점차 확대되어 갔다(Corrigan et. al., 2001; Kadushin, 1962; Lauber et. al., 2004).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감 개념을 사용하여 외국인(김희자, 2008), 여성결혼이민자(전영자·전예화, 2010), 외국인 노동자(김상학, 2004; 김혜숙, 2007), 장애인(김미옥, 2002; 김상학, 2004), 직업집단(김상학, 2004; 김혜숙, 2007), 성집단(김혜숙, 2001)등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집단에 대한

수용적이거나 차별적 행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인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김희자(2008)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미국 백인, 미국 흑인, 중남미인, 동남아시아인, 중국인, 중동인, 아프리카 흑인, 일본인의 순서로 친밀감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동남아시아인은 중간 정도의 순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의 백인에 대한 강한 선호가 확인되었다.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평균 4.8로 중간점인 4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적 거리감의 영향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고정관념과 감정이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행동적 차원인 사회적 거리감에 인지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 중 어떤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남녀 집단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Eagly, Mladinic과 Otto(1994)의 연구에서는 태도가 감정보다는 인지적 요인에 의해 보다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종 집단에 대한 Stangor, Sullivan과 Ford(1991)의 연구, 정신분열증 환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Jussim, Nelson, Mains와 Soffin(1995)의 연구에서는 신념보다는 감정이 편견적 태도에 더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영향요인을 분석한 전영자와 전예화(2010)의 연구에서는 감정이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고정관념은 유의미한 설명변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혜숙(2001)은 다른 성 집단과 타지역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의 영향 변인을 분석하였으며, 성편견적 판단의 경우에는 성범주에 대한 호감도가, 그리고 지역편견적 판단의 경우에는 지역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감정과 고정관념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신념과 감정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한 다양한 결과에 대해, 김혜숙(2001), Stangor 등(1991)은 대상 집단에 대해 뚜렷한 감정이 발전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차별적 태도가 신념보다 감정에 의해 보다 영향을 받으며, 뚜렷한 감정적 선호를 발전시키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차별적 태도가 신념에 의해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 학력 및 가구소득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영자와 전예화(2010)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김혜숙(2007)과 김상학(2004)의 연구에서는 각기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연구를 살펴보면, 김혜숙(2007)의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새터민과 북한주민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남아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김상학(2004)의 연구에서는 학력 및 가구소득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2) 고정관념

1980년대 이후의 인지사회학의 강세로 인해 태도의 인지적 측면인 고정관념이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Hamilton과 Troiler(1986)는 고정관념을 어떤 집단에 대해 개인이 갖는 지식, 신념과 기대를 포괄하는 인지적 구조로 정의하며, Knox, Gekoski와 Kelly(1995)는 고정관념을 어떤 특정 집단의 성원이 어떤 동일한 속성

을 가지고 있다고 일반화시켜서 믿는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와 타인을 범주화 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내 집단에 비해 타집단을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집단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 (Rothbart & John, 1985). Tajfel(1982)에 의하면 사람들은 내집단에 대해서는 주로 긍정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반면, 타집단에 대해서는 주로 부정적인 정보를 기억하게 됨으로써 타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신이 속한 집단을 타집단에 비해 높이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정체감을 향상시키려는 내적 동기에 근거한다.

고정관념은 기존의 틀에 의거하여 정보를 단순화시켜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빠른 해석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일반화의 경향으로 인해 오류와 편파적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내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인종집단의 구성원이 고정관념과 일치된 행동을 할 경우에 이러한 행동을 그가 가진 기질적 요인 등 그의 내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여 이를 그의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으로 인식함으로써 고정관념을 재확인하고 지속되게 하였다. 반면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은 특성을 보이는 경우를 경험할 때 이를 예외적으로 간주하여 자신이 형성한 지식과 신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Bodenhausen & Wyer, 1985; Rothbart & John, 1985).

고정관념이 갖는 이러한 인지적 메카니즘으로 인해 이미 형성된 개인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Fiske(1993)에 의하면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동기와 노력이 전제된다면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정확한 정보처리에 대한 동기를 갖게 되어 정확하고 꼼꼼한 정보처리과정이 이루어

질 때 고정관념은 변화·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한 선행연구로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성택(200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일본인, 북한인, 백인, 중국인, 인도·동남아시아인, 흑인, 중동인의 순으로 긍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동남아시아인은 중간정도의 순위를 나타내었다.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 점수는 평균 39.21로 중간점인 39점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고정관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고정관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전영자와 전예자(2010)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보다 긍정적 고정관념을 많이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상학(200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호감도

편견적 태도나 차별을 예언하는데 있어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감정적 측면 또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shmore와 Del Boca(1981), Stangor, Sullivan과 Ford(1991), Weitz(1972)는 미국사회에서의 인종차별의 근원을 분석하면서 감정이 편견적 태도의 근원이라 주장하였다. 이들 학자들(Ashmore & Del Boca, 1981; Stangor et. al., 1991; Weitz, 1972)은 타인종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부정적인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감정과 편견적 태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편견연구에 있어 감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호감도는 타집단에 대해 좋아하는 감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타집단에 대한 감정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호감도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부재하지

만, 이와 유사한 연구로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김혜숙(2007)의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가정의 소득이 제시되었다. 김혜숙(2007)의 연구에서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호감도가 낮게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상기 설정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는 1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243명의 방문교육지도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한국어교육지도사가 116명, 아동양육지도사가 127명이다.

조사는 2009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에 응답의사를 밝힌 센터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설문지를 우송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

1) 고정관념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임성택(2003)의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 척도는 ‘동남아시아인은 친절하다, 호감이 간다, 평화적이다, 부지런하다, 사리분별을 잘한다, 이성적이다’ 등의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응답 가능범위는 7점에서 91점이며,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점수는 최소 18점에서 최대 91점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긍정적 고정관념을 많이 가진 것을 의미한다.

2) 호감도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혜숙(2001)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방문교육지도사가 이 집단의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좋아한다’(7점)의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가능 범위는 1점에서 7점이며, 점수는 최소 1점에서 최대 7점 사이에 분포하였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보다 많은 호감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3) 사회적 거리감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혜숙·오승섭(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나(혹은 내 자녀)는 동남아시아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내 자녀나 내 동생이 동남아시아 사람(혹은 그 자녀)과 같이 놀게 하겠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 가능범위는 5점에서 35점이며,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감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고정관념, 호감도,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방문교육지도사의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방문교육지도사의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 호감도, 사회적 거리감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연령별로는 40대(59.4%)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30대(23.4%), 50대(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대졸(49.0%)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그 다음 전문대졸(35.0%), 고졸(11.5%)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가정의 월평균수입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27.5%)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5.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교육지도사가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 호감도 및 사회적 거리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 호감도,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을 각각 7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중간점과 비교하였다.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갖는 긍정적 고정관념은 7점 만점에 평균(표준편차) 4.57(.90)로 중간점인 4.00과 큰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비율(빈도)
연령	20-29세	0.4% (1)
	30-39세	23.4% (56)
	40-49세	59.4% (141)
	50-59세	16.1% (40)
	60-60세	0.4% (1)
	계	100.0% (239)
학력	고졸	11.5% (28)
	전문대졸	35.0% (85)
	대졸	49.0% (119)
	대학원졸	4.5% (11)
	계	100.0% (233)
가정의 월평균 수입	99만원 이하	7.2% (17)
	100-199만원	11.9% (28)
	200-299만원	25.0% (59)
	300-399만원	27.5% (65)
	400-499만원	17.4% (41)
	500만원 이상	11.0% (26)
	계	100.0% (236)

<표 2> 방문교육지도사의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 호감도 및 사회적 거리감의 일반적 경향

변수	7점 환산 평균	7점 환산 표준편차
고정관념	4.57	.90
호감도	4.97	.17
사회적 거리감	3.42	1.06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호감도의 평균(표준편차)은 4.97(.17)로 분석되었으며, 중간점인 4.00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표준편차)은 7점 만점에 3.42(1.06)로 중간점인 4.00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방문교육지도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고정관념, 호감도,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

방문교육지도사가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갖고 있는 사회적 거리감, 고정관념, 호감도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표 3>).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된 연령, 학력, 가정 월수입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정관념과 호감도는 연령, 학력,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감은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848, p<.05$). 사후검증 결과 30대 이하의 방문교육지도사가 50대 이상에 비해 보다 적은 사회적 거리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30대 이하의 방문교육지도사는 50대 이상에 비해 동남아시아인을 수용할 행동의도를 보다 많이 가진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감은 학력과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학력 수준, 가정 월수입), 고정관념, 호감도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다중공선성을 파악하였다(<표 4>). 연령과 경제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260, 학력과 경제수준의 상관관계가 .323, 고정관념과 호감도의 상관관계가 .577로 제시되었다. 이상에서 파악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상관수준이 .60이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선행연구(김혜숙, 2007; 전영자·전예화, 2010)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

<표 3> 방문교육지도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 호감도 및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

변인		고정관념	호감도	사회적 거리감	
		M(SD)	M(SD)	M(SD)	Sch.
연령	30대 이하	4.54(0.87)	5.05(1.17)	3.12(1.04)	a
	40대	4.41(0.84)	4.98(1.12)	3.47(1.10)	ab
	50대 이상	4.29(0.74)	4.82(1.32)	3.63(0.88)	b
	F값	1.015	.516	3.848*	
학력 수준	고졸	4.65(0.96)	5.00(1.36)	3.29(1.41)	
	전문대졸	4.41(0.90)	4.95(1.30)	3.38(0.97)	
	대졸이상	4.39(0.76)	4.97(1.03)	3.43(1.00)	
	F값	.996	.017	.474	
가정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	4.42(0.89)	4.97(1.30)	3.41(1.1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50(0.80)	4.97(1.06)	3.45(0.99)	
	400만원 이상	4.34(0.78)	4.94(1.09)	3.45(1.09)	
	F값	.638	.016	.040	

* $p < .05$

Sch.: Scheffé 분석.

a, b: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4)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1. 연령	-					
2. 학력	.052	-				
3. 경제 수준	.260**	.323**	-			
4. 고정관념	-.044	-.082	-.020	-		
5. 호감도	.003	.008	-.055	.577**	-	
6. 사회적 거리감	.150*	.061	.014	-.572**	-.447**	-

**p< .01

치는 변인으로 제시된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연령, 학력 및 경제수준과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호감도가 방문교육지도사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표 5). 분석결과, 가장 설명량이 높은 변인은 방문교육지도사의 고정관념으로 제시되었다. 고정관념은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32.3% ($R^2=.320$)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설명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03.747, p<.001$). 두 번째로 설명변량이 높은 변인으로는 호감도로 나타났으며, 호감도는 사회적 거리감을 1.8% ($R^2=.018$) 설명하였다. 고정관념과 호감도가 회귀식에 투입되면서 회귀모형의 설명변량이 34.1% ($R^2=.341$)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55.784, p<.01$).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은 사회적 거리감을 1.6% ($R^2=.016$) 설명

하였다. 고정관념과 호감도와 연령의 설명변량은 35.7%($R^2=.35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이었다($F=39.746, p<.05$). 학력과 경제수준은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력이 있다고 가정한 변인 가운데 학력과 경제수준을 제외한 변인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고정관념이며, 그 다음 호감도, 연령의 순이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방문교육지도사가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갖는 태도(고정관념, 호감도, 사회적 거리감)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태도의 3가지 차원 중 행동적 차원인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는 1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243명의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방문교육지도사가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은 평균 4.57점으로 중간점인 4.00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성택(2003)의 동남

(표 5)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상수	β	F	R^2	Cum. R^2
고정관념	29.322	-.468***	103.747***	.323	.323
호감도		-.162**	55.784**	.018	.341
연령		.127*	39.746*	.016	.357

*p<.05, **p<.01, ***p<.001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임성택의 연구에서 중·고·대학생의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 평균은 중간점인 39점과 거의 유사한 39.21점을 나타내었다.

방문교육지도사가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갖는 호감도는 평균 4.97로 분석되어, 중간점인 4.00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호감도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관계로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기 어렵다.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갖는 사회적 거리감 점수의 평균은 7점 만점에 3.42점으로 중간점인 4.00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초·중·고등학생의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한 김희자(2008)의 연구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김희자의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은 중간점인 4점보다 약간 높은 4.81이었다.

방문교육지도사가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갖는 사회적 거리감, 고정관념, 호감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방문교육지도사가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갖는 태도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교육지도사의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신념은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보여주었던 수준과 거의 유사하였으며, 방문교육지도사의 사회적 거리감은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보다 좀 더 낮은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 호감도,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학력, 월 가정 수입)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고정관념과 호감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사회적 거리감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방문교육지도사의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태도가 인지적인 차

원과 감정적인 차원에서는 연령, 학력, 월 가정 수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행동의 차원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 이하 집단이 50대 이상 집단에 비해 수용적인 행동을 보다 많이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 호감도 및 사회적 거리감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관계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연령, 학력, 가정의 월수입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호감도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 본 결과, 사회적 거리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고정관념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다음 호감도, 연령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정관념과 호감도와 연령은 사회적 거리감을 35.7%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인지적 측면인 고정관념이 감정적 측면인 호감도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별적 태도의 영향 요인과 관련한 이론에 의하면 뚜렷한 감정이 발전되어 있는 대상에 있어서는 사회적 거리감이 신념보다 감정에 의해 보다 영향을 받으며, 뚜렷한 감정적 선호를 발전시키지 않은 집단에 있어서는 신념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혜숙, 2001; Stangor, Sullivan & Ford, 1991).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리사회에서의 지역 편견이나 미국사회에서 인종 편견은 갈등의 역사를 갖고 있으므로 신념보다는 감정에 보다 큰 영향을 받았으며, 우리사회의 성편견은 뚜렷한 갈등의 감정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정보다는 신념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았다(김혜숙, 2001; Jussim et. al., 1995).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결과

를 살펴보면, 방문교육지도사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특별한 갈등적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감도 보다는 고정관념이 사회적 거리감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문교육지도사의 사회적 거리감에 고정관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방문교육지도사가 동남아시아인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 해당 소수 집단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재학습 내지 재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존의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특성을 보이는 집단의 구성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집단이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하위집단화(subgrouping)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고정관념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Park et. al., 1992). 소수민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방문교육지도사의 고정관념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방문교육지도사 교육프로그램 속에 이러한 재사회화와 재학습화의 기회가 지속적이며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정관념 다음으로 방문교육지도사의 사회적 거리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호감도로 분석되어,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인식적 측면의 변화 뿐 아니라 감정적 측면의 변화까지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김혜숙(1999)에 의하면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타집단과의 접촉

을 증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접촉이 동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거나 그 사회가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선호하는 경우에만 접촉이 긍정적인 감정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방문교육지도사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기 위해 평등의식과 인권 존중의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타집단에 대한 태도는 오랜 기간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평등교육과 인권교육이 보다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개인의 가치관은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 사회적인 차원에서 평등선호적인 가치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이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편견적 태도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결혼이민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방문교육지도사의 긍정적이며 개방적인 태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방안모색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태도만을 분석하였으나, 추후의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인 뿐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 러시아인 등 결혼이민자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출신의 소수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른 종사자, 다문화가족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한된 수의 변인을 가지고 방문교육지도사의 태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 한계를 갖고 있다. 후속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소수민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방문교육지도사의 가치관, 성격 경향, 소수민 집단 구성원과의 접촉 경험 정도 등 보다 다양한 변인을 포함시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방문교육지도사의 태도와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금명자·이영선·김수리·손재환·이현숙(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 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2) 김경화(200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역할 모호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3), 165-181.
- 3) 김경화·민하영(201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143-158.
- 4) 김금미(2010). 대학생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259-283.
- 5) 김미옥(200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 99-126.
- 6) 김상학(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한국조사연구소. 사회연구, 7, 169-206.
- 7)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8) 김혜숙(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33.
- 9) 김혜숙(2001). 집단범주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편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성편견, 인종편견과 한국의 성편견, 지역편견과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6.
- 10) 김혜숙(2002). 고정관념 및 편견과 인간관계. 사회과학연구논총, 7, 83-101.
- 11) 김혜숙(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12) 김혜숙·고재홍·안미영·안상수·이선이·최인철(2003).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21-143.
- 13) 김혜숙·오승섭(1999). 북한사람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외의 비교. 심리과학, 8(1), 1-22.
- 14) 김희자(2008). 외국인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고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 9(1), 255-282.
- 15) 나간채(1988). 직업집단간의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보건복지부(2010). 2010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 17) 서미경·김정남·이민규(2010). 정신장애의 원인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와 친숙함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23-141.
- 18) 이명진·최유정·최셋별(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1), 63-85.
- 19) 임성택(2003).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한국학생들의 고정관념 분석.

- 교육학연구, 41(3), 275-301.
- 20) 전경숙·정기선·이지혜(2007). 다문화교육 정책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21)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0). 2010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결과보고서.
 - 22) 전영자·전예화(2010).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1), 1-13.
 - 23) 차재호(1992). 외국인에 대한 학생 및 성인의 태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자유공모과제 연구.
 - 24) 최훈석·양애경·이선주(2008).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수용성: 안산과 영암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39-69.
 - 25)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08).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
 - 26)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10).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
 - 27)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 28)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1.
 - 29) Allport, G.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MA: Addison-Wesley.
 - 30) Ashmore, R.D. & Del Boca, F.K.(1981). Conceptual approaches to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In Hamilton, D.L.(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pp.1-35). Hillsdale, N.J: Erlbaum.
 - 31) Bodenhausen, G.V. & Wyer, R.S., Jr.(1985). Effects of stereotypes on decision making and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267-282.
 - 32) Bogardus, E.S.(1925).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299-308.
 - 33) Bogardus, E.S.(1933). A social distance scale.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17(Jan.-Feb), 265-171.
 - 34) Corrigan, P.W., Watson, A.C., Peter, B. & Davis, K.E.(2001). Prejudice, social distance, and familiarity with mental illness. *Schizophrenia Bulletin*, 27(2), 219-225.
 - 35) Eagly, A.H., Mladinic, A. & Otto, S. (1994). Cognitive and affective bases of attitudes toward social groups and social polici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113-137.
 - 36) Fiske, S.T.(1993). Social cognition and social percep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55-194.
 - 37) Haddock, G., Zanna, M.P. & Esses, V.M. (1994). The limited role of trait-laden stereotypes in predicting attitudes toward native peopl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83-106.
 - 38) Hamilton, D. L. & Troiler, T. K.(1986). Stereotype and stereotyping: An overview of the cognitive approach. In JF. Dovidio & S.L.Gaertner(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pp. 127-164). Orlando, FL: Academic Press.
 - 39) Jussim, L., Nelson, T.E., Manis, M. & Soffin, S.(1995). Prejudice, stereotypes and labeling effects: Sources of bias in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228-246.
 - 40) Kadushin, C.(1962). Social distance between client and profession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7(Mar.), 517-531.

- 41) Knox, V.J., Gekoski, W.L. & Kelly, L.E. (1995). The age group evaluation and description inventory: A new instrument for assessing stereotypes of and attitudes toward age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0(1), 31-55.
- 42) Lauber, C., Carlos, N., Luis, F. & Wulf, R.(2004). Factors influencing social distance toward people with mental illnes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0(3), 265-274.
- 43) Laumann, E.O.(1965). Subjective social distance and urban occup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1, 26-36.
- 44) Park, B., Ryan, C.S. & Judd, C.M.(1992). Role of meaningful subgroups in explaining differences in perceived variability for in-groups and out-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553-567.
- 45) Rothbart, M. & John, O. P.(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behavioral episodes: A cogni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tergroup contact. *Journal of Social Issues*, 41(3), 81-104.
- 46) Stangor, C., Sullivan L.A. & Ford, T.E. (1991). Affective and cognitive determinants of prejudice. *Social Cognition*, 9(4), 359-380.
- 47) Stephan, W.G., Ageyev, V. Coates- Shirider, L. Stephan, C.W. & Abalikina, M.(1994).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ereotypes and prejudice: An international stud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277-284.
- 48) Tajfel, H.(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49) Weitz, S.(1972). Attitude, voice and behavior: A repressed affect model of interra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14-21.

- 투 고 일 : 2011년 6월 1일
- 심 사 일 : 2011년 7월 13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8월 18일